

국가 정체성에 따른 올림픽 픽토그램 기호의 표현양식 연구

퍼스의 기호학 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Olympic Pictogram Symbols by
National Identity

Based on Perth's semiotics theory

주 저 자 : 김경실 (Kim, Kyung Sil)

한양사이버대학원 디자인기획전공

교신저자 : 엄기준 (Um , Gi Jun)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umkj@hycu.ac.kr

Abstract

The Olympics, the largest sporting event in the world, is a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event where many people enjoy and participate together, transcending language, culture and race. As various cultures and languages coexist, Pictogram, a non-verbal visual communication, is used more actively in the Olympics than the language. This not only serves as a symbol of sporting events but also represents the image and identity of the nation through its forms and colors.

This study analyzed and studied the Olympic pictograms by year and country, focusing on the theory of Peirce's semiotics, and examined how each host country revealed its national identity through the expression form of the pictogram. Based on this, one can see how the national brand is represented and what the contemporary features of the time when it was made. In addition, one can see how they have been modified, supplemented and evolved according to the trends of the times. Furthermore, we look at the future directions of pictograms with the development of rapidly changing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Keyword

Olympic pictograms, Nonverbal Communication, National Identity, Symbolic Design

요약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인 올림픽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는 만큼 언어보다도 더욱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비언어적 시각 커뮤니케이션인 픽토그램이다. 이는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기호화하여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형태와 색상을 통해 국가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올림픽 픽토그램을 연도와 국가별로 구분하여 피스의 기호학 이론을 중심으로 어떻게 픽토그램을 디자인하여 기호로 표현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그 표현양식을 연구하였다. 올림픽 픽토그램은 제작 당시의 시대적인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색상과 형태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기호화하여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보완되고 수정되는 변화를 반복하고 있으며 기호로서의 역할과 함께 디자인도 진화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정보의 발달에 따른 미래 픽토그램의 발전 방향도 모색하여 본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이론적 배경

- 2-1. 픽토그램의 개념과 정의

- 2-2. 올림픽 픽토그램의 개념

- 2-3. 피스의 기호학

3. 올림픽 픽토그램의 시대별 구분과 시각적인 특징 분석

4. 올림픽 픽토그램의 기호학적 해석

- 4-1. 피스의 기호학적 접근에 따른

올림픽 픽토그램 디자인 분석
4-2. 올림픽 픽토그램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

5. 결론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으로써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것이 바로 픽토그램이다. 이는 현대의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림문자이다. 도로 표지판, 공항, 마트, 지하철, 인터넷 등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언어를 대신하여 그 의미를 간단히 기호화하여 표시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다. 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접하며 생활하는 이 시대에 점점 더 그 필요성과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러한 픽토그램 중에서도 목적이 가장 뚜렷하며 시대적, 국가별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올림픽 픽토그램이다. 1896년 제1회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을 시작으로 하여 4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역사 깊은 스포츠 이벤트인 올림픽. 가장 대표적인 국제행사인 만큼 올림픽 픽토그램은 기호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심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과 대중성을 가지면서 어떠한 표현양식으로 국가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냈는지 알아보고 시대적으로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시작으로 픽토그램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1964년 도쿄 올림픽부터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의 올림픽 픽토그램을 중점적으로 시대별로 구분하고 그 특징과 표현양식을 퍼스의 기호학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는 소쉬르와 함께 기호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진 미국의 철학자이자 논리학자로서 기호작용의 유형을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 5-1. 올림픽 픽토그램을 통한 국가의 정체성 표현
- 5-2. 올림픽 픽토그램의 미래

참고문헌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올림픽 픽토그램의 픽토그램의 형태와 색상, 표현양식을 통해 어떻게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었는지 알아보고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연구해 보았다. 또 이전 올림픽 픽토그램이 다음 개최지의 픽토그램 디자인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특징을 짚어보며 수정 및 보완되며 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올림픽 픽토그램의 발전 방향도 모색해 본다.

2. 이론적 배경

2-1. 픽토그램의 개념과 정의

픽토그램 디자인은 비언어적인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으로써 처음 접했을 때 단순한 그림문자를 보고 그 의미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기능적인 면이 강조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픽토그램의 특징을 3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첫째로 단순화가 가장 대표적이다.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불필요한 내용을 제거하고 단순하게 표현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단명료하게 상징적인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로 명시성이다. 그 상징 기호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내포된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어야 한다. 세번째는 객관성이다. 국가와 연령, 성별 등 불특정 다수가 보고도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언어적 심벌이어야 한다.¹⁾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현대사회는 나날이 세계화, 정보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러한 시대에서 픽토그램은 국제교류나 행사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언어나 문화적인 한계

1) 신현숙, 올림픽 픽토그램 표현 방식에 나타난 국가적 정체성 및 디자인의 관계 연구, 가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3~7

를 극복 하는데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2. 올림픽 픽토그램의 개념

다양한 인종이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함께 즐기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인 올림픽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수단이 올림픽 픽토그램이다. 스포츠 종목과 각종 표시의 안내 등 상징적인 의미전달과 함께 개최국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써 회마다 디자인과 그 가능성이 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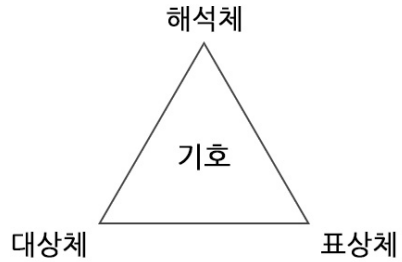
2-3. 퍼스의 기호학

평생을 기호학을 연구했던 미국의 철학자이자 논리학자인 퍼스(1839~1914)는 소쉬르와 함께 현대 기호론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기호학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기호를 구성하는 요소를 3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대상(Object)’과 ‘해석체(Interpretant)’, ‘기호체(Represent, 표상체)’이다. 이는 퍼스의 삼원론이라고도 불리며 기존의 대상과 그 의미를 나타내는 이원론적 정의에 ‘해석체’라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퍼스는 대상과 기호, 그리고 매개체로써 양자를 연결시키는 해석체의 세가지 서로 다른 삼항 관계가 기호작용의 바탕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상체와 대상체의 관계에 따른 분류로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의 기호 삼분법이 있다. 도상은 대상과의 유사성에 기초하고 있는 기호를 뜻한다.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미를 갖게 되는 특성을 소유한 기호이며,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체로 귀결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표는 퍼스의 독창적인 기호 유형 중 하나로, 만약 그 대상이 제거된다면 기호가 되는 특성을 상실하지만, 해석체가 없다고 해도 그 특성을 상실하지 않는 기호이다. 상징은 관습성에 의해 그 대상을 표상하는 기호로, 상징과 지시대상의 관계는 자의적이고 관례적이다.²⁾ 올림픽 픽토그램은 그 특성상 도상적 성격이 두드러지는데, 다음의 분석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2) 강미정, 퍼스의 기호학과 미술사, 이학사, 2011, p158~161



[그림 1] 퍼스의 삼항적 기호모델

3. 올림픽 픽토그램의 시대별 구분과 시각적인 특징 분석

올림픽 픽토그램의 첫 등장은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이었다. 당시 히틀러의 나치 정권 시대에 개최되어 하켄크로이츠(Hakenkreuz, 나치즘의 상징)와 매우 닮아있다. 정치적 배경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의 동작보다 운동 기구나 도구로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2] 베를린 올림픽 픽토그램

[그림 3] 하켄크로이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40년과 44년 2차례나 올림픽이 열리지 못했다. 1948년 런던 올림픽으로 다시 개최되었을 때는 아직 픽토그램에 대한 개념이 없을 당시였기에 심볼 이라기보다 일러스트에 가까운 형태를 띤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에 대한 추상적인 묘사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며 단순화나 통일성이 다소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1964년 도쿄 올림픽부터 픽토그램이 공식화되었으며 이 픽토그램을 토대로 하여 보편화 되기 시작하였다. 현대와 가장 비슷한 형태의 기호적으로 표현된 픽토그램이 도입되었는데 동작과 도구 등이 추상적으로 도형화되었으며 색감과 형태에 통일성을 준 것이 인상적이다.

1968년에는 남미의 멕시코 시티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멕시코는 인디언 문명의 발상지이다. 다인종, 다문화의 멕시코는 전통행사에서 여러 색감으로 된 옷을 차려입거나 모자를 쓴다. 다채로운 색감은 열정적인 멕시코의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올림픽 픽토그램 또한 배경에 다채로운 색상을 입혀 화려한 색감이 돋보인다.

1972년 뮌헨 올림픽은 처음으로 인물 조형 표준화를 도입하였다. 표준화, 단순화, 식별성을 기준으로 디자인했고 이는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모스크바 올림픽 이후에는 디자인에 대한 지침서가 생기고 픽토그램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명료함, 일관성, 가독성, 적응, 특징, 호환성이라는 6가지 지침을 바탕으로 디자인된다.

1988년도에 열린 서울 올림픽에서는 천, 지, 인의 조합을 한국적 전통무늬로 표현한 엠블럼을 사용하였다. 이는 화합과 전진의 의미를 담고 있다. 픽토그램의 특징은 백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머리, 팔, 다리를 백색에 검은 스트로크로 몸통을 표현해 기존 픽토그램과 구별된 모습을 나타낸다.

[표 1] 연도별 올림픽 픽토그램의 시각적인 표현양식 연구

연도 개최지	픽토그램 (육상, 축구)	형태			색상		스타일 타입	시각적인 표현양식 특징	
		프레임	동작	도구	프레임	동작/도구			
1936 베를린		사각	X	필/스트로크 직접적표현	블랙	그레이	1	· 올림픽 픽토그램의 첫 등장 · 나라의 경치상 반영한 디자인 ·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인 표현	
1948 런던		둥근 사각	X	스트로크 직접적표현	화이트	블랙	1	· 하단이 둥근 모양의 프레임 · 선으로만 표현 · 동작과 도구의 직접적인 표현	
1964 도쿄		X	X	필컬러 분리형	X	블랙	1	· 동작과 도구를 추상화하여 표현 · 배경없이 1톤(블랙)으로 단순화 · 올림픽 픽토그램 공식도입	
1968 멕시코 시티		둥근 사각	X	필컬러	필컬러	화이트	1	· 도구를 추상화하여 각 종목을 표현 · 프레임에 종목별 20여가지 원색 도입 · 픽토그램의 색상을 화이트로 통일	
1972 뮌헨		X	X	필컬러 분리형	스트로크	X	블랙	1	· 직각과 45도의 대각선만 사용 · 도구를 스트로크로 표현 · 스포츠 국제표준디자인 제정 도입
1976 몬트리올		X	X	필컬러 분리형	스트로크	X	블랙, 레드	2	· 뮌헨 올림픽 픽토그램 그대로 도입 · 레드 색상 추가로 27지 타입
1980 모스크바		둥근 사각	X	필컬러 연결형	필컬러	블랙	화이트	1	· 화이트 필컬러로 동작과 도구 표현 · 둥근 사각의 블랙 배경 프레임 · 신체를 연결하여 표현
1984 LA		사각	X	필컬러 분리형	스트로크	그레이	화이트	1	· 화이트 필컬러로 동작과 도구 표현 · 신체를 분리하여 표현 · 도구를 스트로크로 표현
1988 서울		X	X	필/스트로크 연결형	스트로크	X	블랙	1	· 신체의 몸통만 스트로크로 표현 · 도구를 스트로크로 표현
1992 바르셀로나		X	X	필컬러 분리형	필컬러	X	블랙	1	· 필컬러로 선의 느낌을 주어 곡선화 · 얇은 선으로 도구 및 배경 표현 · 배경없이 1톤(블랙)으로 단순화
1996 아틀렌타		X	X	필컬러 연결형	필컬러	X	블랙	1	· 인체를 굴곡을 직접적으로 표현 · 배경 없이 1톤(블랙)으로 단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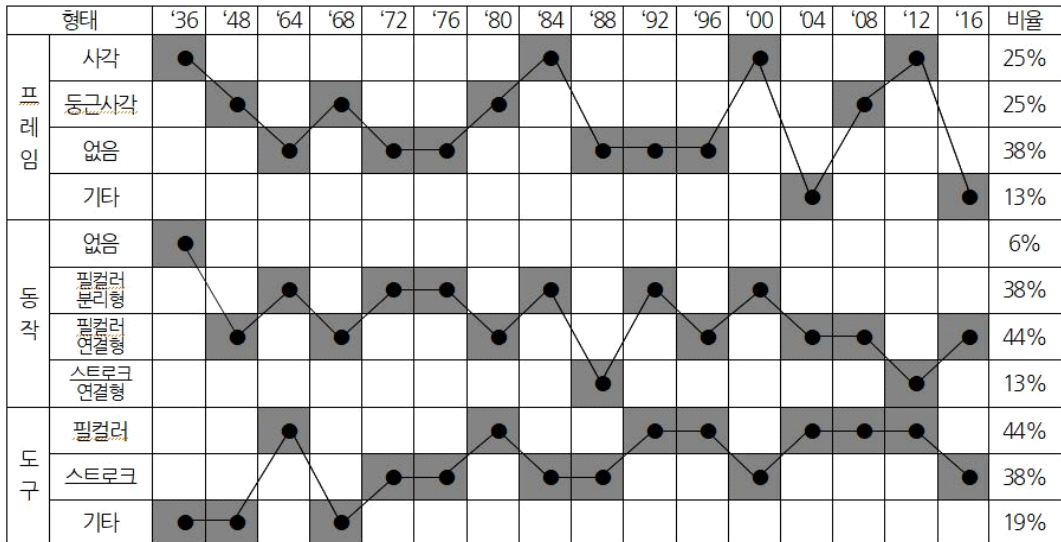
2000 시드니		사각	필컬러 분리형	스트로크	풀컬러 블루	화이트	2	· 팔, 다리를 분리해 두께감을 줌 · 배경을 2가지 버전으로 분리 · 기존과 차별화된 디자인 독창성
2004 아테네		사각 불규칙	필컬러 연결형	필컬러	오렌지	블랙	2	· 강하고 역동적인 컬러 조합 · 얇은 곡선으로 연결형으로 표현 · 불규칙한 프레임 구조
2008 베이징		X	필컬러 분리형	필컬러	블랙	블랙 화이트	2	· 1톤(블랙)의 곡선으로 표현 · 도구나 배경은 얇은 곡선으로 분리 · 프레임 유무로 2가지 버전 나뉨
2012 런던		사각	필/스트로크 연결형	필컬러	블랙	핑크+블 루 화이트	2	· 2톤의 연결된 선으로 교차시켜 동작표현 · 스트로크와 필컬러 2가지 버전 나뉨
2016 리우		원형 불규칙	필컬러 연결형	스트로크	풀컬러 블루	풀컬러 화이트	2	· 불규칙한 둥근 프레임 · 다채로운 색상의 필컬러 조합 · 동작은 필컬러, 도구는 선으로 표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로는 객관적이고 단순화된 기호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국가별로 디자인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부터이다. 프레임과 동작에 색채를 더하고 기호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개최국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공식적인 픽토그램과 독자적인 디자인의 픽토그램의 2가지 타입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팔다리를 분리해 두께감을 주었고 프레임에 다채로운 색감의 스트로크를 주어 기존과 차별화된 풍부한 색감을 선보였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불규칙한 프레

임을 도입하였고 넓은 대지를 연상시키는 배경과 얇고 검은 선으로 표현한 동작은 강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역대 가장 창의적이고 독특하다고 평가받는 픽토그램이 등장한다. 곡선을 단순화하여 사람과 도구를 이용해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다음의 [표 2] ~ [표 4]는 연도별로 올림픽 픽토그램의 형태, 색채, 표현양식을 분류하여 패턴을 분석한 표이다. 이를 통해 시대별 흐름을 알 수 있으며 발전양상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2] 연도별 올림픽 픽토그램의 형태 변화



디자인 사조에서도 그렇듯이 반복되는 디자인은 거의 없다. 이는 올림픽 픽토그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직전 대회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개혁이 되거나 보완되는 등의 변화를 주어 나타내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픽토그램의 형태를 프레임, 동작, 도구 3가지로 분류하여 패턴을 분석하였다. 프레임은 사각이나 둥근사각 혹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전 픽토그램과 겹치지 않게 번갈아 가며 디자인 되었으며 올림픽 픽토그램이 공식화 되어 자리잡기 시작한 1972년~1996년 사이의 픽토그램은 프레임없이 기호로만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기타로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불규칙한 사각 프레임과 2016년 리우 올림픽의 불규칙한 원형 프레임을 사용한 경우이다.

동작의 표현은 전체를 색으로 채워 면으로 표현한 '필컬러'와 선으로 표현한 '스트로크'로 나누고 머리와 몸통, 팔다리가 분리되면 '분리형'으로 연결된 형태면 '연결형'으로 구분하였다. 크게 필컬러-분리형과 필컬러-연결형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도구는 대체적으로 단순하게 도형화하여 표현되었다. 초창기에 동작 대신 도구로만 종목을 표현하거나 디테일하게 디자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이나 선을 이용해 단순한 기호로 나타냈다. 각각의 회마다 이전 픽토그램의 영향을 받아 필컬러와 스트로크 형태가 번갈아가며 변화되어 디자인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연도별 올림픽 픽토그램의 색상 변화

색상		'36	'48	'64	'68	'72	'76	'80	'84	'88	'92	'96	'00	'04	'08	'12	'16	비율
프레임	블랙	●						●	●									19%
	화이트		●	●		●	●			●	●	●			●	●		56%
	컬러				●								●	●		●		25%
동작	블랙	●	●	●		●	●			●	●	●			●	●		63%
	화이트				●			●	●				●					25%
	컬러															●	●	13%

올림픽 픽토그램의 색상을 프레임과 동작으로 나누어 각각 블랙, 화이트, 컬러로 구분하였다. 초반에는 블랙과 화이트로 단순한 색상을 주로 사용하여 기호로의

기능을 강조 하였다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로는 프레임이나 동작에 컬러를 도입하여 각 개최국을 연상시키도록 디자인 되었다.

[표 4] 연도별 올림픽 픽토그램의 시각적인 표현양식

표현양식		'36	'48	'64	'68	'72	'76	'80	'84	'88	'92	'96	'00	'04	'08	'12	'16	비율
도상 Icon	직접적	●	●		●							●		●		●		38%
	추상적			●		●	●	●	●	●	●		●		●		●	6%
지표 Index	획일성		●	●		●	●	●	●	●	●	●						56%
	다의성	●				●							●	●	●	●	●	44%
상징 Symbol	스포츠종목		●	●	●	●	●	●	●	●	●	●						63%
	국가/지역	●											●	●	●	●	●	38%

표현양식은 기호(도상,icon)를 얼마나 직접적으로 표현했는지, 추상화하여 간단한 도형으로 표현했는지를 구분하여 표시해 보았다. 초반에는 기호보다 일러스트

에 가까운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고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현대의 픽토그램과 가장 가까운 기본 도형형태의 픽토그램이 처음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표준화되어 기호로서 정착한 것은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부터였다. 이 이후로는 지금의 기호형태로 정착하였으며 1996년 아틀랜타 올림픽 이후로 디자인을 강조하여 기호화된 형태에 디테일을 넣어 기호에 국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끔 디자인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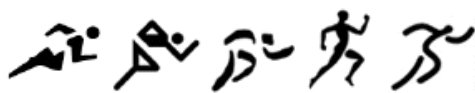
올림픽 픽토그램의 지표(index)가 스포츠 종목만을 나타내고자 했다면 확실성에 체크하고 국가의 이미지나 종목외의 다중성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양식을 사용했다면 다의성에 표시하여 분류해 보았다. 이 역시 1972년 뮌헨 올림픽 이후로 객관성이 강조되어 흑백 색상으로 형태와 색상을 단순화하여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로는 픽토그램의 프레임이나 동작, 색상을 변형시켜 기호를 통해 개최국의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갖춘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기호가 갖는 상징(symbol)이 스포츠 종목에 치우쳐져 있는지 국가의 이미지 발현에 치우쳐져 있는지 구분하였을 때 시대적으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초반에는 기호로서 정착되는 과정에 있기때문에 1948년 런던 올림픽부터 1996년 아틀랜타 올림픽까지는 스포츠 종목을 상징하는 기호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로는 스포츠 종목에 국가의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낸 픽토그램임을 알 수 있다.

4. 올림픽 픽토그램의 기호학적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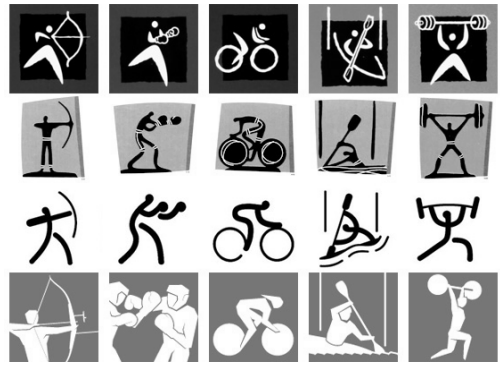
4-1. 퍼스의 기호학적 접근에 따른

올림픽 픽토그램 디자인 분석



'64 도쿄 '72 뮌헨 '92 바르셀로나 '04 아테네 '08 베이징

[그림 3] 픽토그램의 변천과정



[그림 4] 시드니 아테네 베이징 런던 올림픽 픽토그램

올림픽 픽토그램이 기호로서 단순화, 표준화되는 작업을 거쳐 정착되기 시작한 초기의 모습은 배경이 없고 블랙색상의 추상적인 형태로 단순화 되어 발전되었다. 이후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올림픽 픽토그램을 통해 국가의 이미지를 픽토그램의 형태나 색체에 강하게 드러내어 표현해 디자인된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브랜드를 어떻게 기호화 하였는지 그 특징이 두드러지는 2000년 이후의 올림픽 픽토그램을 선정하여 아래의 [표 5]에서는 퍼스의 기호학 이론을 바탕으로 도상, 지표, 상징으로 분류하고 기호에 숨겨진 의미와 나타내고자 했던 국가이미지는 무엇인지 분석 해 보았다.

먼저, 시드니 올림픽 픽토그램은 스포츠 종목별로 인체의 팔 혹은 다리를 분리해 두껍게 강조하였다. 이 대상체는 호주 원주민들이 예로부터 사용해 온 사냥도구인 부메랑을 기호체로 하였으며 호주의 자연 친화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프레임의 블루, 오렌지, 퍼플, 그린 등 강하고 다채로운 원색을 채택하여 호주의 광활한 자연환경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픽토그램은 불규칙한 프레임이 특징적이며 동작들도 검은색의 음영을 새긴 고대 유적의 벽면화나 판화를 연상시킨다. 넓은 대지를 연상시키는 배경색을 도상 기호로 사용하였으며 그리스의 검은 꽃병과 키클라데스의 대리석상에서 영감을 받아 흑색 도기의 음각을 형상화하여 동작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기호의 표현으로 고풍스러운 우아함과 옛스러움을 더해 올림픽의 발상지인 고대 그리스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는 '올림픽 정신으로의 복귀'라는 아테네 올림픽의 타이틀에 잘 어울리는 기호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픽토그램은 검은색의 일정한 두께의 곡선을 이용해 마치 춤추는 것 같은 형상을 한 모양으로 픽토그램을 제작하였다. 중국은 한자의 기원이 되는 갑골문자를 픽토그램의 기호체로 선정하여 역동적인 동작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를 통해 중국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고대문화와 다이내믹한 현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베이징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핑크와 블루 2가지 색상의 선을 교차하여 도상 기호로 표현하였다. 실제 기호보다 선을 더 연장하여 가로와 세로 선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는데, 이는 마치 지하철 노선도를 연상시키는 의미작용을 하여 세계 최초로 개통된 런던의 지하철을 상징하고 있는 기호로 해석할 수 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픽토그램의 프레임은 조약돌 모양으로 불규칙적이고 직접적인 모양으로 디자인

하여 도상적 기호로 표현하였다. 파란색의 배경과 물결처럼 유연하게 표현한 동작을 통해 리우의 아름다운 해변 도시와 자유분방한 삼바의 매력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배경색에 따라 블루와 올컬러 2종류로 컬러 버전은 원색의 다채로운 색 조합을 사용해 삼바 축제로 유명한 남미 국가의 모습을 특색있게 나타내었다.

2020년에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에서 사용될 픽토그램이 발표되었다. 동작의 형태는 1964년에 열린 도쿄 올림픽 픽토그램 모양을 계승한 형태로 전통과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의 정신이 담겨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원형 프레임 버전은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를 연상시켜 단순화한 기호 안에서 국가의 이미지를 드러내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 퍼스의 기호학적 접근에 따른 올림픽 픽토그램 디자인 분석

연도 개최지	픽토그램	도상 (Icon)	지표 (Index)	상징 (Symbol)	1차 의미	2차 의미	국가 이미지
2000 시드니		컬러 스트로크 프레임 팔, 다리 분리하여 두께감을 줌	사냥 도구인 부메랑으로 호주 원주민 삶을 표현하고 광활한 자연환경을 프레임의 색채로 나타냄		호주 원주민의 사냥도구인 부메랑, 다채로운 자연경관	-다양한 색채로 호주의 자연을 표현 -호주 원주민들의 사냥도구인 부메랑으로 자연친화적인 국가이미지 표현	 
2004 아테네		토기유물을 연상시키는 배경색상, 그리스 고대유물의 검은 음각을 상징하는 동작 표현	그리스의 고대문명, 올림픽 발상지를 상징하는 옛스러움을 나타내고자 함. 고대 토기 유물의 파편, 검은 꽃병 그림 연상시킴.		그리스 검은 꽃병, 키클라데스의 대리석상	-그리스의 고대문명을 연상시키는 유물 -올림픽의 발상지	 
2008 베이징		일정한 두께의 곡선형태로 표현	중국의 갑골문자 춤을추는 듯한 동작표현		중국 갑골문자	-중국의 유구한 역사를 나타내고자 한자의 기원이 되는 갑골문자 형태를 도입 -역동적인 곡선 디자인으로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베이징을 표현	  

2012 런던		핑크와 블루색상의 선을 이용해 교차, 연장하여 표현	지하철 노선도		영국 지하철 노선도	-현대식 지하철을 처음 도입한 런던의 지하철 노선도를 연상시키는 디자인	
2016 리우		불규칙한 원형 프레임 다양한 색상 배경	삼바축제 조약돌 모양의 프레임		브라질 삼바축제, 조약돌, 남미국가의 광활한 자연환경	-브라질의 광활한 자연환경과 삼바축제를 연상시키는 색상을 도입 -해변도시를 상징하는 블루 색상과 불규칙한 조약돌 모양 프레임	
2020 도쿄		원형 프레임	일장기		일본 일장기, 64년 도쿄 올림픽 픽토그램	-64년도의 픽토그램을 계승하여 발전시킴, -국기를 연상시키는 원형 프레임 도입	

4-2. 올림픽 픽토그램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

[표 6] 시대적 구분과 특성

구분	대표 픽토그램	특징
I기 초창기		일러스트적 요소가 강하며 국가이념, 정체성을 드러냄
II기 정착기		표준화, 공식화되기 시작하며 매 경기 픽토그램 도입
III기 발전기		객관성을 유지하며 이전 대회와 차별화 주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디자인적으로 발전적인 양상을 보임.
IV기 성장기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국가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형태나 색감의 변화가 두드러짐.

V기 안정기		객관성과 국가정체성 표현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 디자인과 기능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형태.
-----------	--	---

올림픽 픽토그램이 처음 등장한 1936년 베를린 올림픽부터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까지는 초창기로 아직 픽토그램이 정착되지 않았고 공식화, 표준화되지 않아 때에 따라 픽토그램이 제작되지 않은 때도 있었다. 이때에는 기호로서 상징화되기보다 정치사상을 나타내거나 단순히 의미 전달을 위한 기능을 강조해 직접적인 표현을 하였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였던 만큼 대회마다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국제 표준화 기준을 도입한 1972년 뮌헨올림픽부터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까지는 정착기라고 할 수 있다. 초반에는 의미전달을 위한 기능을 강조해 직접적인 표현을 하였으나 1968년 이후 단순화, 추상화되기 시작해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지금의 표준 픽토그램 형태가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가로와 세로, 45도의 대각선만으로 표현한 뮌헨 올림픽 픽토그램은 그 기능성이 높이 평가되어 다음 올림픽인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 그대로 사용되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에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더욱 가미되어 추상화되기 시작한 발전기로 올림픽 픽토그램의 기능적인 면이 강조되어 색상을 통일하고 동작도 단순화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객관적인 기호의 기능을 강조한 디자인을 선호하면서도 이전 대회와는 차별화를 두기 위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2000년대 이후로는 픽토그램의 발전-성장기로 기호로서 기능과 함께 각각의 국가 이미지를 픽토그램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성향이 돋보인다. 그러나 기호로서의 의미작용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로 인해 최근에는 다시 기호성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전 올림픽 픽토그램은 다음 픽토그램 제작에 영향을 주며 변화되어 디자인되는 패턴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프레임을 넣거나 없애는 방식, 동작의 표현을 색으로 표현하거나 선으로 표현하는 방식, 도구의 표현양식 등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갈아 가며 변화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5-1. 올림픽 픽토그램을 통한 국가의 정체성 표현

국가별로 차별화를 둔 픽토그램의 다채로운 표현은 흥미를 자아낸다.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인 올림픽에서 픽토그램이라는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나라별로 개최국의 정체성과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포츠 종목이라는 공통적인 주제를 기호화함으로써 국제적인 표준의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면서도 색채나 추상화된 기호 형태, 프레임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이를 통해 각국의 미술가, 디자이너, 아트 디렉터들의 고심과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이러한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삼 디자인이 가진 힘을 느낄 수 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국가의 디자인을 엿볼 수 있도록 올림픽을 통해 기회가 확장되고 세계화에 앞장서는 도구로서 사용될 것을 기대해 본다.

5-2. 올림픽 픽토그램의 미래

2018년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회식과 폐회식에서는 한국의 앞선 5G 기술력을 이용하여 작은 불빛이 달린 드론을 이용해 스키장 공중에 올림픽 오륜기 모양을 나타낸 퍼포먼스를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종목별 픽토그램 또한 화면에 정지된 이미지가 아닌 짧게 움직이는 영상으로 나타내기도 하여 다채로운 모습으로 흥미를 자아내었다. 최근 발표된 2020 도쿄올림픽 픽토그램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 2분 30초가량의 영상으로 소개되고 있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끌어 화제가 되었다.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 4차산업 시대의 시기적인 흐름으로, 앞으로의 픽토그램은 VR 체험과 3D 기술의 도입, 색채와 형태의 변화가 있는 움직이는 픽토그램 등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새로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1. 강미정, [퍼스의 기호학과 미술사], 이학사, 2011
2. 박 경,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현대 픽토그램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 송진원, 사회적 디자인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4. 오적, 올림픽 픽토그램 표현 방식에 나타난 국가적 정체성 및 디자인의 관계 연구, 가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5. 유동원, 기호학적 접근에 따른 유통공간의 픽토그램 디자인,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6. 이은영, 올림픽 픽토그램 변천 과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7. www.olympic.org/ioc
8. www.tokyo2020.org/en/
9. www.naver.com